

# 여수 섬지역 22일부터 배송 드론 뜬다

물류 취약지 배송 시범사업 시작  
송도·상하도·금오도 등 10곳  
신성장 동력 드론산업 토대 마련



여수시 관계자들이 드론 배송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드론 배송 점검 시연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에서 드론을 이용해 섬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획기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여수시는 오는 22일부터 11월 말까지 물류 취약지인 섬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시의 드론 배송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총 사업비 17억2000만원(국비 12억원,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4억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드론배송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드론배송의 대상 지역은 송도, 대·소두라도, 대·소횡간도, 제도, 상·하화도, 금오도 등 관내 섬 지역 10곳이다. 또 오는 10월에는 섬 특산품인 전복을 역배송하기 위한 돌산 소재 호텔리조트 5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배송 물품은 5kg 이하의 생필품, 긴급의약품, 배달음식 등이며, 구역별로 주1~2회 배송할 계획이다.

이용 희망자는 배송앱 '여수플라이'를 이용하거나, 배송사업체에 전화로 주문·예약하면 된다. 이후 도착 알림 메시지를 받으면 지정된 배달점에 가서 물품을 찾으면 된다. 배송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까지 여수시의 체계

적인 준비가 있어 가능했다.

지난 3월부터 돌산 진모·작금항, 화정면 개도에 드론이·착륙장, 관제 등 배송거점을 설치하고, 물품수취시설인 배달점과 드론상항실 등 기반 시설을 마련했다. 또한 비행로 및 안전관리시스템, 배송앱 개발 등 배송체계도 세부적으로 구축했다.

이에 앞서 시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2023년 6월~2024년 6월)'으로 지정되어 스마트 해양 관리, 고층·장거리 물류배송 등 고도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여수시의 노력은 미래 신성장 동력인 드론산업을 이끌어 갈 탄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드론 배송은 향후 물류 및 운송산업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최첨단 기술로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드론 배송에 따라 배송시간이 단축되고, 외딴 곳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비용절감 효과까지 있어 발전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섬지역 드론배송 서비스가 정착되면 의약품 배송 등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 드론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하여 생활 전반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순천만국가정원에 숨겨진 보물 찾아라

순천시 12일까지 깜짝 이벤트  
정원초대권 등 풍성한 상품 교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보물찾기 이벤트' <사진>가 열린다.

순천시가 기획한 이번 이벤트는 국가정원을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깜짝 감동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보물찾기'는 정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선물 교환권을 찾아낸 관람객에게 국가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것으로, 관광의 재미를 더욱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로운 놀이문화 콘텐츠의 창조 공간으로서의 정원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벤트는 순천만국가정원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 접속해서 팔로잉 후 댓글을 통해 보물이 숨겨진 장소에 관한 힌트를 요청하면 된다.

시는 이를 확인하고 DM(메시지)을 통해 사



진 힌트를 전송하면 참여자들은 국가정원에 직접 방문해 숨겨진 보물을 찾으면 된다.

보물찾기의 주요 상품은 웨케이션 숙박권을 포함해 국가정원초대권, 정원드림호 이용권, 시크릿 어드벤처 이용권 등 유료 콘텐츠 이용권이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국가정원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풍성한 선물을 받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양 관광 SNS 올리면 최대 8만원 인센티브

개별 관광 지원 '오늘 광양 어때?'

광양에 관광 오면 최대 8만원 지원받는 '오늘 광양 어때?' 아시나오.

광양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양을 찾는 개별 관광객에게 최대 8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여행정책 '오늘 광양 어때?'를 펼친다.

'오늘 광양 어때?'는 2~5인의 소규모 개별관광객이 광양을 여행하고 SNS 인증 등 지원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광지원 방문, SNS 인증 등을 필수 지원조건으로 관내 소비금액 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3만원, 5만원, 8만원 등의 인센티브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 하루 전까지 사진

계획서를 담당자 이메일(minjeong55@korea.kr)로 제출해야 하며, 여행 후 7일 이내 해당 관광지 정보를 포함한 SNS를 게시해야 한다. 단 SNS 게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참여 횟수는 연 1회로 제한되며, 팀 대표는 만 18세 이상으로 여행 종료 15일 이내 지급신청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오늘 광양 어때'는 급증하는 소규모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광양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사업이다"면서 "올 여름휴가 광양에 와야만 즐길 수 있는 획기적인 관광콘텐츠를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완도군 9~10일 명사십리해수욕장서 해양치유 치맥페스티벌

맥주 마시기·버스킹·EDM 파티

완도군은 오는 9~10일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 위치한 완도해양치유센터광장(완토리니)에서 '2024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완도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9일 오후 4시30분 맥주(무알코올) 빨리 마시기 대회를 시작으로 해양치유 버스킹 라이브, 썸머 나잇 EDM 파티 등 야간 공연이 펼쳐진다.

페스티벌 기간 운영되는 해양치유 비어존에서는 시원한 생맥주와 치킨, 다양한 핑거푸드, 보해양조와 협업해 만든 '다시, 마주', 완도군관광협의회 수제 맥주 등이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해양치유 버스킹 라이브에는 총 6팀이 참여하고 썸머 나잇 EDM 파티에는 DJ와 스트리트 댄스팀이 출연해 신나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완도군은 치맥 페스티벌에 많은 피서객이 찾을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해양치유센터 전경.

것으로 보고 응급의료지원반, 현장대응반 등을 꾸려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완도군 관계자는 "일상 속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신지 명사십

리는 여름철 최고의 휴양지"라며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과 함께 무더위를 날려버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장성군, 결혼이주여성 15가구 친정 보낸다

장성군이 올해도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가족 항공료와 모국 체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 입국 2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으로 올해는 선정 기준을 완화해 총 15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 표창 이력 유무 등 서류심사 기준이 다양해졌다.

'장성군에 머문 기간', '모국 방문 횟수', '부양가족 수' 등으로 우선 수위를 정하며 기준에 지원

받은 가정은 신청할 수 없다.

장성군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5가구에 대해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로 나눠 친정 방문을 지원한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사업 추진을 통해 지금까지 140가구에 고향 방문 기회를 제공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화목을 다지고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친정 보내기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